

국정 농단 이 와중에?

일본과 군사협정 체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선물 보따리 들고 방일 하려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도 역사와 국민이 무서워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끝내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국정 농단이
사드, 독도, 위안부 등 외교안보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와중에,
11월 체결을 목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2월 초, 한중일 정상회의 예정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 길 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절대
안돼!**

- 일본은 위안부 강제동원 등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부정하며 또다시 전쟁과 침략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보법(전쟁법) 제·개정 이후 국방비를 늘리고 선제공격 무기를 도입하는 등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일본군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의 공항과 항만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일본군은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어 미군 요구로 일본군이 한반도에 출병할 경우 한국이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빌미삼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고, 더구나 일본군이 북한에 출병하는데 한국 동의는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필요성 인정되면 자위대 입국을 허용할 것”(황교안 총리, 2015.11)처럼 박근혜 정부는 이미 미국, 일본과 함께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 방안과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군홃발이 한반도를 유린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바라만 볼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나서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저지합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일 군사동맹 구축

절대 안돼!

북한 핵미사일 대응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말!
일본이 획득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우리에게 실익 없어!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는 일본보다 북한과 가까운 우리가 더 빨리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보는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조기경보'의 역할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입니다.
- 한국은 이미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확보할 자산이 있는데다가 미군 정보자산까지 포함하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미사일방어망(MD)과
군사동맹 구축 위한 것!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

- 미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으로 날아가는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조기경보'를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나 한국 이지스함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미일 미사일방어망이 구축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양국이 직접 군사정보를 공유하면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이 구축됩니다.
- 한미일 미사일방어망과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제공해주고 북일 교전시 일본을 도와주어야 하는 등 민족을 등쳐야 합니다.
- 또한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적대하게 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도 요원해집니다.

**한반도가 구한말처럼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과 군사동맹 구축을 반드시 막아냅시다!**

